

간절히 원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틱낫한 지음 | 김은희 옮김 | 명진출판 | 9000원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마지막 희망이다. 그래서 기도는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은 의문으로 바뀌고 대상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게 된다.

삶도 마찬가지로이다. 삶에 대한 의문부호들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틱낫한 스님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까?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출간된 화제작 <기도>에는 틱낫한 스님이 기도의 의미를 성찰하며 우리 삶이 고통받고,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와 종교와 인간, 깨어있는 삶에 대한 아름다운 성찰로 가득하다.

책을 펴자마자 틱낫한 스님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당신 자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라"고 말한다.

불교도뿐 아니라 가톨릭 또는 개신교 신자를 만났을 때도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 해온 스님은 "기도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주가 인간에게 준 아주 특별한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누구나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왔다"며 "형태와 표현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무언가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는 데 있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기도의 효과는? 스님은 이제까지 미소만 지을 뿐 이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을 한 적이 없다.

스님은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대답을 이 책에 담았다.

가장 궁금해하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 스님은 "과거의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주고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 즉 기도로 새로운 에너지를 내면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장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스님은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이끌고, 좋은 변화를 불러온다. 기도는 그 과정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주는 선순환의 도구"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전화기를 사용할 때 전기와 전화선이 필요하듯 기도를 할 때도 믿음과 자비 등 사랑의 에너지가 전력구실을 한다는 것. 그러한 전력이 없으면 기도를 한다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화기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것 저것 해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과 변화 불러와 "기도는 그 과정에서 좋은 변화 이끄는 선순환의 도구"

주기를 바란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에 대해 스님의 대답은 단호하다.

스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자체만의 의미를 지니고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부분들로 이뤄져 있으며, 또한 그와 반대되는 요소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님은 "진정한 기도란 상대성을 넘어선, 더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기심을 담은 어리석음이나 탐욕의 표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틱낫한 스님은 기도의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 불교안에서만 지혜를 구하지 않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넘나든다. 또 부록으로 틱낫한 스님의 주기도문 해설을 실어 불교와 기독교가 외형적으로는 매우 다르게 보이나 가르침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어린이날, 불교출판문화협회 추천 어린이 도서

5월 5일은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린이날이다. 우연이지만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어린이날과 겹쳐 있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가 어린이날 읽을 만한 6권의 도서를 추천했다. 어린이날 다른 선물보다도 어린이들에게 도서 권을 선물한다면 어떨까. 잘 고른 도서 한권이 새싹 불자들의 종교관과 인생관을 좌우 할 수도 있다.

사람답게 살려면 나눠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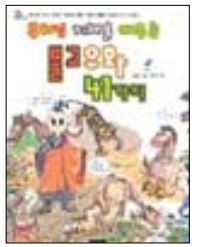
▶ **법정 스님이 들려주는 참 좋은 이야기**(법정 스님 지음, 동쪽나라) = <무소유>에서 보여준 법정 스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이제 어린이들도 함께 느껴볼 수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짧은 이야기들이 깔끔한 그림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은 "이웃은 내 자신과 마찬가지로 '늘 이웃을 서로 아끼고 나누고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사랑과 평화, 나눔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7500원

'백유경' 서 가려뽑은 불교우화

▶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정수일 글, 운주사) = <백유경>에서 가려뽑은 이야기들을 어린이와 어른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각색한 만화. <백유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서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수행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에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묶어 엮은 경전이다.



내용은 일종의 우화 모음집인 만큼 주로 희극적이거나 해학적인 내용의 설화와 비유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교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경전이자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8500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소중하단다

▶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김종상 글, 파랑새어린이) = 옛날 스님들은 생명을 귀중히 여겨 새 그리고 벌레와 나뭇잎 먹으며 씨앗을 세게 씹고, 깨진 바가지도 나무뿌리로 먹고, 옷깃에 달라붙은 풀씨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스님의 남다른 지 않은 하루 일과를 전한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켜지고 어스름한 저녁나절의 암자의 모습이 보이고, 처마 밑의 고즈넉한 풍경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책은 스님들이 암송하는 짧은 사구로 된 계송중에서 고르고 가려내 뽑은 좋은 구절들을 담은 것이다. 6160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할까

▶ **꼬마 돌부처**(하오 광차이 글, 예림당) = 꼬마 돌부처는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는 인심을 풀어 시원하게 해 주고, 누군가 산 길에서 콩 넘어지려고 하면 다치지 않게 붙잡아 주기도 한다. 꼬마 돌부처의 이야기는 살아가는 데 지혜로운 이야기로 가득하다.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행복할까?' '무엇을 하면 기쁜 일이 될까?' 등 몸에 익혀야 할 공은 심성과 올바른 도덕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해준다.



또 꼬마 부처님은 '남을 돕는 일이 커다란 행복'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지혜와 교훈을 일깨워준다. 5600원

명찰에 얽힌 재미있는 옛이야기

▶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이슬기 지음, 해와 나무) = 이 책은 보문사, 선유사, 상연사, 낙산사, 부석사, 불국사, 관음사, 내소사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 여덟 개를 골라 그 절에 전해 오는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담았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유서 깊은 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 뒤, 절에 얽힌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읽게 된다.

또한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절에 남아 있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와 절이 위치한 고장의 또 다른 문화 유적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7200원

만화로 보는 세계 최초 동화집

▶ **석가모니 지혜동화**(허순봉 글, 은하수미디어) = <자카타(본생경)>라고 하는 경전은 547편의 동화를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동화집이다. 이 동화집은 기원전 4세기 경에 만들어져 세계 여러나라로 전해지면서 '이슬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 등과 우리나라 '토끼전', '두견새', '고려장 이야기'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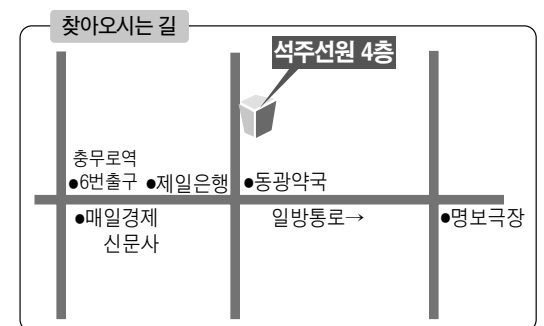
이 책은 자카타와 다른 경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것이다. 어린이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길라 만화로 엮어 재미와 지혜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800원



"달마도는 이런 것입니다"

매매하지 않고 보시로 일관한 석주 달마도를 서울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KBS 뉴스광장 - 250m 달마도 완성
- MBC 금요일의 선택 - APEC 성공기원 달마도
- SBS 나이트 라인 - 백살 사는법과 함께하는 달마도
- 스포츠 조선 - '달마야 광화문 가자' (황수철 기자)
- 동아일보 - 야노히데끼 <가보로 보관> (이호갑 기자)
- 중앙일보 - 대입수험생 용기와 희망을 (김병현 기자)
- 한겨레신문 - 수험생합격 기원 무병장수 기원 (김광수 기자)
- 한국일보 - 달마대사의 기운으로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동렬 기자)



석주 달마선원 개원법회 2006년 5월 4일 (음, 4월7일) / 달마도 전수생(스님) 약간명 문의 바랍니다

석주 달마선원 | 서울 중구 충무로3가 30-5 전화 02)2263-3035 / 011-420-7173